

독립신문 소재 개화기시가의 찬송가 영향攷

송 현 호*

I. 문제의 제기

개화기시가가 최근 들어 많은 연구가들¹⁾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것은 개화기시가가 지니고 있는 과도기적 현상에 의한 특수한 성격에 기인하는 것으로, 문학사에서의 위치 정립의 문제에서부터, 전통시가와의 관계, 서구시가와의 관계, 그리고 근대시와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광

* 博士課程(國文學專攻)

- 1) · 김상선, '개화노래의 형태적 고찰'('중대논문집' 16, 1970. 10)
· 김병철, '개화기시가사상에 있어서의 초기 한국 찬송가의 위치,'('아세아 연구' 42호, 1971. 6)
· 이동영, '개화기시가의 고찰'('영남대공전논문집', 1971)
· 정한모, '한국현대시문학사'(일지사, 1974)
· 조동일, '개화기의 우국가사'('개화기의 우국문학', 신구문화사, 1974)
· 홍일식, '개화기시가의 사상적 연구'('민족문화연구', 고대민족문화연구 소, 1974. 9)
· 김병철, '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율유문화사, 1975)
· 김영철, '개화기의 시가연구'(서울대석사학위논문, 1975).
· 김학동외, 「개화기문학론」(형설출판사, 1978)
· Sym Myung-ho, *The Making of Early Modern Korean Poetry*, (London, 1980)
· 김용직, '개화기시가의 형성과 전개'('개화기문학론', 1981)
· 김학동, 「한국개화기시가연구」(시문학사, 1981)
· 김해성, '외국시가의 수용과 그 영향문제'('아카데미논총' 제10집, 일 넘, 1982)
· 박철희, 「한국시사연구」(일조각, 1982)
· 조신권, 「한국문학과 기독교」(연세대학교출판부, 1983)

법위하게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전통시가의 계승이냐, 서구시의 수용이냐 하는 문제가 집중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전통의 계승이냐, 아니면 전통의 단절이냐 하는 문제를 종종 야기시켜 왔다. 전통의 계승이냐 단절이냐 하는 문제는 개화기시가에서뿐 아니라 문학 전반에 걸쳐 우리 문학연구가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외국문학의 수용을 단순히 이식사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전대의 우리 문학을 무의 상태로 파악할 때는 전통의 단절이라는 이야기가 가능하겠으나, 외국문학을 수용하여 전대의 우리 문학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요인을 청산하고 새로운 전망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할 때는 전통의 계승이란 이야기가 가능해지겠다.²⁾

우리의 개화기시가도 후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문화현상 일반에서와 마찬가지로 문학도 끊임없는 개혁과 창조 없이는 그 생명의 지속이 불가능한데, 개혁이나 창조는 대개 외연상의 새로움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개화기시가는 우리³⁾의 전통시가를 계승·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서구시가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측면에서의 접근은 김춘수·조지훈·송민호·정한모·이동영·김용직·김학동·김병철교수 등³⁾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초기에는 작품분석이 사상된

2)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필자의 '20년대 소설연구의 현황과 문제점'('한국학보' 32집, 일지사, 1983)을 참조.

3) · 김춘수, 「한국현대시형태론」(해동문화사, 1958)
 · 조지훈, 「반세기의 가요문학사」('사상계' 8, 1963)
 · 송민호, 「개화기시가상의 창가」('아세아연구', 고대아세아문제연구소, 1966)
 · 정한모, 「한국현대시문학사」('현대시학' 3-5, 1971. 5)
 · 이동영, op. cit.
 · 김용직, op. cit.
 · 김학동, 「한국개화기시가연구」(시문학사, 1981)
 · 김병철, 「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율유문화사, 1975)

자리에서 주로 그 가능성만이 전제되고 있다. 김춘수교수는 애국가의 구성법이 ‘보다 더 기독교의 찬송가에서 영향된 것일 것’⁴⁾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며, 조지훈교수은 ‘이 창가의 형성에는 기독교 찬송가의 번역과 그 곡조가 크게 영향했음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⁵⁾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송민호교수는 ‘배화·이화를 비롯한 초기 개화기 학교는 거의 미션 계통이었던 만큼 교가는 찬송가조이다’⁶⁾라 하고 있으며, 정한모교수는 ‘번역시에 나타난 7·5조 이외의 자유율은 1890년대 초기에 이미 들어오기 시작한 기독교의 찬송가와 더불어 자유시의 리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⁷⁾라고 말한다. 이러한 전제가 전달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켜 극단적인 전통고수론을 주장케 한다. 구자균과 심명호⁸⁾는 개화기시가를 전적으로 전통시가의 계승으로 보고 있으며 심지어 최남선의 신시까지를 전통시가에서 배태된 것으로 주장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극단론의 극복은 이동영·김용직·김학동·김병철교수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김춘수·조지훈·송민호·정한모교수가 조심스럽게 전제한 바, 서구시의 수용양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또한 그 과정에서 전통시가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밝힌다. 이동영교수는 ‘새 문학 양식이 등장하였다 하여 기존의 시가군이 일조에 소멸되었다거나 창작활동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존의 시가가 새 양식에 영향을 주면서 어느 시기까지는 공존하는 것이다.’⁹⁾라고 말하며, 김용직교수는 ‘창가의 형식·전개를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기독교다. 기독교 가운데도 신교 교회에서 그 신자들이 노래부르도록 만들어진 찬

4) 김춘수, op. cit., p. 15.

5) 조지훈, op. cit., p. 149.

6) 송민호, op. cit., p. 13.

7) 정한모, op. cit., p. 104.

8) 구자균, ‘한말우국정시가에 대하여’(『문리논집』, 고대문리과대학 4집, 1959. 12)

Sym Myung-ho, op. cit.

9) 이동영, op. cit., p. 6.

송가는 우리 창가의 형성·전개에 매우 중요한 구실을 했다. …우선 이 무렵의 창가는 그것을 지은이와 가창자가 대개 기독교 신자들이었다. 이 경우 「황제탄신경축가」와 「이국가」는 그 좋은 증거가 된다¹⁰⁾고 말 한다. 김학동교수는 ‘개화기시가의 형성요인으로서 기독교사상의 영향은 매우 중요’¹¹⁾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김병철교수도 찬송가와 애국·독립가류의 상관성을 음수율의 측면에서 탐진한 후 ‘성서를 한글로 번역하게 된 의도는 대중에게 널리 보급하려는 것이겠으나 그것이 우리의 근대문학에 미친 영향은 그 표기체계, 어문의 구조, 문체 및 신어에 이르기까지 언어생활 속에 침투되어 갔으며 이것이 ‘새로운 문학장르를 가능케’¹²⁾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동영·김용직·김학동·김병철교수 등은 구체적인 작품분석을 통하여 논지를 펴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객관화된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개화기시가 중 독립신문 소재 애국·독립가류¹³⁾에는 그들의 지적과는 달리 상당히 이질적인 요인들이 많이 나타나 있다.

이에 필자는 그들의 업적을 토대로 약간의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는 선에서, 개화기시가에서의 서구시가의 수용양상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일환으로 본고에서는 독립신문 소재 애국·독립가류에 나타난 찬송가의 수용양상을 구체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이것은 다른 개화기 시가에 비해서 애국·독립가류가 비교적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찬송가의 수용양상을 밝혀봄으로써 이론의 여지를 될 수 있는 한 좁혀보고자 한 것이기도 하다.

10) 김용직, op. cit., p. 169.

11) 김학동, op. cit., p. 16.

12) 김병철, op. cit., p. 169.

13) 여기에서 필자는 독립신문에 실린 시가를 애국·독립가류라고 명명한 것은 개화가사를 2분하여 그 하위개념으로서 상정한 것이 아니라 다만 이들 시가가 대개 애국이나 독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거나 그 내용이 애국·독립에 대한 것들이어서 잠정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Ⅱ. 작가를 통한 접근

개화기시가는 대개 신문을 통하여 발표되었으며, 무서명이 통례였다. 그런데 독립신문에 실린 애국·독립가류는 예외에 속한다. 독립신문에는 27수¹⁴⁾의 애국·독립가류가 실려 있는데, 이 중에서 작자가 밝혀지지 않은 것은 한 수도 없다. 참고로 작품과 작자, 작가의 직업 및 주소 그리고 발표시기 등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작 품	작 가	직업 및 주소	발표시기
1 최돈성의 글	최돈성	서울순청골	1896. 4. 11
2 대표선 조쥬독립 이국하노노리	니필균	학부쥬스	1896. 5. 9
3 이국가	던경탁	인천체물포	1896. 5. 19
4 동심가	리중원	양쥬	1896. 5. 26
5 김교익의 글	김교익	금강	1896. 6. 2
6 노티	허일이	남서순검	1896. 6. 2
7 이국가	한명원	누동	1896. 7. 4
8 이국가	리용우	묘동	1896. 7. 7
9 노티	경무학도들		1896. 7. 16
10 독립문가	김석하	양성	1896. 7. 16
11 이국가	윤태성	북서순검	1896. 7. 18
12 이국가	달성회당예수교인		1896. 7. 18
13 이국가	박기령	남동	1896. 8. 1
14 이민가	송천사립학교학원		1896. 8. 18
15 조쥬독립가	문경호	비지학당학원	1896. 8. 20
16 이국가	최병희		1896. 9. 1
17 성결송축가	신영탁	경상도봉화	1896. 9. 3
18 이국가	김종섭	평양학당	1896. 9. 5

14) 독립신문에 실린 애국·독립가류의 편수를 조지훈교수는 20수, 송민호교수와 정한모교수 그리고 김윤식교수는 23수, 김병철교수는 26수, 김학동교수와 조신권교수는 27수라 하고 있는데,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27수가 발표되었다.

	작 풍 작 가	직업 및 주소	발표시기
19	이국독립가	최영구	비직학당학도
20	이국가	리영언	평양보통문안
21	이국가	김철영	농상공부주스
22	경축가	김거범	인향용동예수교당
23	독립가	최병현	농상공부주스
24	이국가	이응선	강원도 김화
25	성몽가	문경호	비직학당학도
26	연설노리	리치옹	전주
27	군가	윤철규	시위 2 대티대대 터장
			1898. 11. 2

그런데 위의 표를 통해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그들의 직업이 다양하다. 이러한 사실은, 개화기시가는 전문적인 제작자에 의하여 제작되지 않았으며 그 내용이 우리 주변의 관심사를 반영한 거울 내지 **導體** 구실을 한 셈이라는 시적¹⁵⁾을 가능케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작가들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은 적어도 창작자로서의 자부심을 조금이나마 느끼고 있었던 데에서가 아니겠는가 하는 추정을 낳고 있다. 전자의 경우는 대단히 적절한 지적이겠으나 후자의 경우는 다소 비약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우리가 좀더 시야를 넓혀서 생각하면 후자의 경우도 역시 곧 수긍할 수 있게 된다. 앞의 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이들 작가들이 거의 하급관리나 기독교 계통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 크다.

초기 기독교의 대중화운동이 하층계급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이들 노래가 기독교와 무관할 리 없으리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만약 이러한 추정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것이기만 하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상정할 수 있게 된다. 즉 그들이 찬송가를 배우고 익히는 사이에 자연발생적으로 이들 노래들을 짓게 되었을 것이며, 그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밝힌 것도 찬송

15) 김용직, op. cit., p. 147.

가에 영향된 바를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추정을 보다 더 타당성 있게 해주는 것은 초기 찬송가집인 「찬미가」와 「찬양가」 그리고 「찬성시」에 우리의 손으로 지어진 찬송가가 몇 수 들어 있다는 사실이다.

찬미가

수록번호	찬 송 가 명	작 자
11	놈흔일흉찬양하고	한 국 인
42	세상사름죄악만하	"
53	예수의놈흔일흉이	"
72	우리비록난하나	백 홍 준
87	우리죄악심증호야	한 국 인
89	유태국에나신구류	"

찬양가

수록번호	찬 송 가 명	작 자
4	이세상을내신이는	한 국 인
24	만국방언다잘하고	"
38	우리예수큰공로가	"
40	세상사름죄악만하	"
61	예수의놈흔일흉이	"
87	고로움파어려움	"
93	어렵고어려오나	백 홍 준
113	이세상의준령들은	한 국 인
115	나는밋네나눈밋네여호아이	"

찬성시

수록번호	찬 송 가	작 자
32	어렵고어려오나	백 홍 준

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손으로 지어진 찬송가가 「찬미가」에 6수, 「찬양가」에 9수, 그리고 「찬성시」에 1수 실려 있다.

물론 중복된 것이 많기는 하지만 중복된 것을 제외해도 13수나 된다.
또한 1905년에 윤치호가 역술한 「찬미가」에도 우리의 '황제송'과 '애국
송'이 몇 수 들어 있다.

우리 황상폐하 텐디 일월갓치 만수무강,
산 높고 물 고흔 우리 대한 폐국,
하나님 도우사 독님부강

길고 긴 왕업은 룡홍강 푸른 물,
쉬지 안듯, 금강 편만봉에
날벗 찬란함은 태극과 영광이 빛취난듯.

——제 1 장 황제폐하송——

성자신손 천만년은 우리 황실이요
산고수려 동반도난 우리 본국일세
(후렴)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요.

——제 10장, 애국송——

인용한 시가는 윤치호가 역술한 「찬미가」에 수록되어 있는 '황제폐하
송'과 '애국송'의 일부이다.

그렇다면 찬송가를 배우는 과정에서 번역 찬송가 외에 우리의 손으로
지어진 찬송가를 접하게 되었을 것이요, 그 과정에서 작가에 대한 동경
과 아울러 자기도 해보고 싶은 강한 호기심을 느꼈을 공산이 커진다.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밝혔을 것이고, 애국·독립가루를 실었
던 점에 창작자로서의 자부심을 느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하다. 이것이 객관화되
고 타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찬송가가 이들 시가에서 어
떻게 수용되고 있는가가 밝혀져야 될 줄로 믿는다.

■. 찬송가의 수용양상

1. 시의 목소리

독립신문에 실린 애국·독립가류는 대개 자주독립·부국강병·문명개화·애국사상·민중의 단합·신교육의 필요성 등을 노래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 제목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는데, 애국가나 독립가라는 제목을 붙인 시가만 해도 무려 16수에 달하고 있으며, 비록 제목을 다르게 붙이고 있다 할지라도 그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시가가 대부분이다.

부국강병된연후에
태극기를높히달아

일청국을압제하고
오대쥬에횡령하면

——김철영 이국가——

나라도울심각으로
시종여일동심호세
집을작기흉라면
나라몬져보전호세

——최돈성의 글——

교육호여성취호후
문명진보호눈세에
조선관민일심호세

——최병희 이국가——

우리나라대조선온
조류독립분명호다
조류독립되야시면
문명기화효률시고

——리영언 이국가——

우리 만민 합역 하여
 냉부·률도·와주세
 심상으로 알지 말고
 인심 합역 이 써보세
 —— 허일이 노리 ——

남녀업시 일학 후야
 세계학식비화보자
 (합가) 교육치야기화되고
 기화치야사통되네
 —— 니필균 이국가 ——

인용 시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들 애국·독립가류는 대개 민중계몽에 그 목적이 있었다. 때문에 설득적인 목소리가 되고 있는 데, 이것은 엘리어트가 말한 바 시인의 제 2의 목소리에 해당된다. 엘리어트는 시의 목소리¹⁶⁾를 세 가지로 나눈 바 있다.

제 1의 목소리는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시인의 목소리인데, 이것과 특히 관계가 있는 것은 서정시이다. 이것은 음악에 맞추기 위한 짧은 시라는 의미에서의 서정시가 아니라, ‘직접 시인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시라는 의미에서의 서정시이다. 때문에 이러한 시는 교훈적 주제도, 이야기체의 구성도 아니라는 것이 그 특징이다. 제 3의 목소리는 시인이 만들어낸 작품인물로 하여금 시로써 말을 하게 하려고 할 때의 시인의 목소리이다. 이 때, 시인은 자기 자신이 말하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 상상적 인물이 다른 상상적 인물에게 말을 한다는 한계 내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극시에서 들을 수 있는 목소리인데, 극적 요소가 들어 있는 일반시, 특히 극적 드라마에서의 시인의 목소리와 비교함으로써 명시할 수가 있다. 이에 반해서 제 2의 목소리는 시인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즉 어떤 청중에게 말하는 시인의 목

16) 시의 목소리란 시인이 시를 쓸 때, 그 시가 독자에게 어떻게 들리도록 쓰느냐 하는 것을 일컫는다.

소리이다. 이것은 확실히 의식적인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시, 즉 사람들에게 오락이나 교훈을 주려는 시·이야기를 말하려는 시·도덕을 설교하거나 지시하고 있는 시 그리고 설교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풍자시 등에서 들을 수 있는 목소리이다.¹⁷⁾

이렇게 볼 때 독립신문에 실린 애국·독립가류는 찬송가와 같은 유형의 목소리에 속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애국·독립가류와 찬송가를 대비함으로써 보다 더 확연해지리라고 생각된다.

심상으로 알지 말고

인심합역 이씨보세

——허일이 노래——

합심하고 힘을 써서

독립국을 힘써보세

——문경호 이국가——

귀혼령혼 예수뜨라

현당에 곧 올나가세

——예수의 놈 혼일희이——

이천만인 오죽 한맘 나라 사랑하여

사농공상 귀천업시 직분 다하세

우리 나라 님금 상천이 도우사

국민 동락 만만세에 태평독립하세.

——윤치호의 「찬미가」 10장——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의 추정이 가능해지겠다. 즉 애국·독립가류의 작가들이 대개 기독교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설득조의 목소리는 기독교의 수용에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인용한 시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의 손으로 씌어진 찬송가와 애국·독립가류가 모두 찬송가조의 목소리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일이다. 또한 당시는 기독교의 찬송가가 급속한

17) T.S. Eliot, *On Poetry and Poets*, 1957 참조.

대중화를 이루고 있었을 뿐 아니라 기독교가 내셔널리즘과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도 추정이 가능한 일이다.¹⁸⁾

2. 찬양의 노래

대한매일신보 등에 실린 개화기 시가들이 때로는 ‘극단적인 어휘 사용을 불사하면서까지 일제와 그 주구들에 대한 공격을 서슴치 않’는 등, 대개 ‘사회모순에 대한 민감한 반응 내지 강한 비판정신을 담고 있’¹⁹⁾었던 데 반해서, 독립신문에 실린 애국·독립가류가 한 수도 이러한 경향을 보이지 않고 있음은 특이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독립신문의 경영진이 미국에서 신교육을 받고 돌아온 신진 엘리뜨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에서도 수긍이 가지 않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독립신문 창간호 논설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그들은 초당적 태도·만민평등의 정신·여론의 대변자로서의 역할·부정과 불법의 과감한 지적·국가와 인민을 위한 공평한 여론의 진작·순국문전용 등을 내세웠고 또 그것을 견지해 나갔기 때문에, 경영진 스스로가 사회비판적인 내용의 시가들을 규제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18) 이에 대해서 이유선교수는 ‘한국에 있어서 개신교의 찬송가는 한국의 서양 음악을 가능케 했을 뿐 아니라, 애국가운동과 창가운동의 전개로 이 나라 내셔널리즘의 가치가 되었고, 신문학운동 그리고 예술가곡과 대중음악에 이르기까지 실로 한국근대문화의 모체가 되었던 것을 부정할 수 없다’(『韓國洋學80年史』, 중앙대학교출판국, 1968, p. 96)고 말한 바 있으며, J.S. Dennis는 ‘한국교회가 지난 가장 흥미있는 양상의 하나는 애국심이다. 우리의 해안성은 어느날 아침 늦게 북쪽 땅에 우리를 내려 놓았다. 강언덕 마을을 보니 대나무 끝에서 조그마한 한국 국기가 휘날리고 있었다. 이 것 말들은 기독교인들의 집이나 교회 위에서 휘날리는 것이었다. 주일날이면 국기를 그들의 집이나 교회 위에 단다는 것은 선교사들의 아무 지시도 없이 기독교인들 사이에 일어난 실천이었다.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그날의 성격을 표명하고 그들의 존경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Christian Mission and Social Progress, Edinburgh; Oliphart Anderson & Ferrier, 1899, p. 250)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K.S. Latourett교수는 ‘민족적 비운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경서적인 충격 때문에 한국교회는 급격한 격증을 보이게 되었다.’(Christianity in a revolutionary Age, Vol. III, London, Fyre & Spottiswoode, 1961, p. 488)라고 말한 바 있다.

19) 김용직, op. cit., p. 153.

또 하나 이상한 것은 이들 노래가 찬양조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찬양조는 시대적인 사조로 인하여 자주독립·애국사상 등을 노래하다 보니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한결같이 찬양조로 훌려버리고 거기에 찬송가적 색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가들이 대다수라는 점을 생각할 때 쉽게 수긍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홍후기를

비누이다하느님의

——최돈성의 글——

하느님의성심기도

국티평과민안락을

——달성회당예수교인 이국가——

우리나라위호라면

하느님의기도하야

——문경호 조주독립가——

현디디간만물중에

사통이웃듬일세

——이옹선 이국가——

조주독립호랑이면

인민스랑첫지로다

——김철영 이국가——

현디만물창조후에

오쥬구역현명이라

——최병현 독립가——

영화롭다영화롭다

대조선국영화롭다

——정무학도들 노력——

즐겁도다즐겁도다

조주독립출겁도다

——윤태성 이국가——

경축호세경축호세

하느님의경축호세

——김기범 경축가——

인용한 시가들을 통하여 앞에서 이야기한 사실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사실 독립신문의 경영진이 기독교계통의 사람이라는 점과 작가들이 기독교의 대중화와 무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찾아져야 할 것 같다. 결국 찬송가의 수용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겠는데 이것은 기독교가 한참 퍼질 무렵 우리 주변에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민요가 나돌기 시작했다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²⁰⁾

3. 민족어의 사용

대한매일신보나 황성신문 등에 실린 개화기시가들이 한문투나 국한문 혼용체에 의하여 대중적이지 못했던 데 반해서 독립신문에 실린 애국·독립가류는 ‘국문체 또는 구어체로 써어졌’²¹⁾던 까닭에 상당히 대중적

20) 기독교계통의 민요가 애국·독립가류와 대단히 유사한 성격을 지닌 데서 그러한 가능성은 찾을 수 있다. 참고로 기독교계통의 민요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밀어보세

밀어보세

하나님을

밀어보세

천지만물

내려주신

하나님을

밀어보세

밀어보세

밀어보세

구세주를

밀어보세

(근대민요선, 1975, p. 86)

21) 경한모, 「한국현대시문학사」(일지사, 1974), p. 84.

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李完用氏 드르시오 總理大臣 더 地位가
 壇人之下 萬人之上에 그 責任이 엇더호가
 修身齊家 못훈사옴 治國인들 잘훈손가
 前日事는 如何던지 今日부터 悔改호여
 家庭風氣 바로잡고 百度政務 維新호야
 中興功臣 되여 보소

宋秉畯氏 들으시오 內務大臣 더 地位가
 中外政務 總察하고 官吏賢愚 銓衡이라
 그 責任이 至重인데 公의 政策맡을진데
 賣國賊을 免을손가.

——勸告現內閣——

대조선국건 양원년
 조주독립깃버 황제
 님군의충성하고
 정부를보호하세요
 나라도울성 각으로
 시종여일동심하세요
 집을각기홍호라면
 나라온져보전하세요
 나라위희죽는죽엄
 영광이제원한업네
 우리나라홍호기를
 비나이다하느님의

——최돈성의 글——

인용한 시가는 1909년 1월 30일자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권고현내각」과 1896년 4월 11일자 독립신문에 실린 「최돈성의 글」의 일부이다. 인용한 시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독립신문에 실린 애국·독립가류는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시가들과는 달리 표기어가 순한글이었

기 때문에 대중적이었던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이들 시가가 순한글로 써어진 것은 물론 독립신문의 성격에 말미암은 것 이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의 가능성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즉 애국·독립가류의 작가들이 기독교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과 당시 기독교가 널리 보급되어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만약 우리가 기독교의 성서·찬송가 등의 번역이 한글 보급에 큰 역할을 했다는 점²²⁾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이들 애국·독립가류도 그 영향을 적지않게 입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서민과 부녀자층을 대상으로 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서민들에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성서나 찬송가가 서민들에게 쉽게 읽히고 쉽게 노래불려질 필요가 있었다.²³⁾ 때문에 서민들의 언어가 쓰여진 것은 당연한 일로 사료된다.

이렇게 볼 때, 애국·독립가류도 대중에게 널리 보급되기 위해서는 찬송가가 취한 방법을 택할 필요가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기독교와 기독교 찬송가가 어떻게 대중화되었던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입증이나 해주듯이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기독교적 색체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가들이 많을 뿐 아니라, ‘이민’·‘하느님’·‘성심괴도’·‘인민수령’·‘령령’ 등과 같은 기독교적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4. 형태상의 특징

독립신문에 실린 애국·독립가류는 그 형태적인 면에서도 새로운 시형으로서의 모색 과정이 여실히 보인다. 그것은 비록 전통시가와 마찬가지로 4·4조의 자수율을 견지하고 있기는 하나, 분절이나 후렴구 그리

22) Ibid., pp. 100-101.

23) 이에 대해 김용직교수도 ‘기독교가 이들 평민들 속에 뿌리를 박기 위해서는 찬송가도 그들이 즐겨 부를 수 있는 게 되어야 했다. 또한 그런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찬송가가 서민들의 언어를 쓸 필요가 있었다’ (김용직, op. cit., p. 171)고 말한 바 있다.

고 합가 등의 형태가 시도되고 있는 점에서 확인된다.

먼저 분절의 형태는 전통적인 서사민요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²⁴⁾이기는 하지만, 연 사이에 뚜렷하게 숫자나 기호를 표시함으로서 취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시가와의 차이가 발견된다.

폐일

현디만물창조후에
오쥬구역현명이라
아시아쥬동양중에
대조선국분명하다

후렴

독립기초장구술은
군민상의폐일이라
깃분날깃분날
대조선국독립훈날
깃분날깃분날
대조선국독립훈날

——최병헌 독립가——

일

춤깃분날하느님이
나를그조식십는날
일노크게깃분소리
현하만민암회흐네

후렴

깃분날깃분날
예수내죄다셋신날
빌고혼방비흐는법
예수붉히그른쳤네
깃분날깃분날
예수내죄다셋신날

——춤깃분날하느님이——

24) Sym Myung-ho, op. cit., p. 53.

인용한 시가는 1896년 10월 31일자 독립신문에 실린 최병현의 「독립가」와 초기 찬송가집의 하나인 「찬미가」에 실린 「촘깃분날하는 님이」의 일부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분절의 형태뿐 아니라 시 자체에 있어서도 이들 시가가 대단히 유사한 면모를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분절의 형태가 찬송가에 영향된 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위에서 인용한 시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독립신문에 실린 애국·독립가류에 후렴구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도 찬송가에서 많이 찾을 수 있는 요소일 뿐 아니라, 당시 기독교계 학교인 배재학당의 학도들이 불렀으며 찬송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무궁화가에서도 찾을 수 있는 요소라는 점에서도 찬송가의 영향으로 보인다.

1. 경조신순오백년은 우리황실이요
산고슈려동반도는 우리본국일세

(후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대한으로 길이보전하세
2. 이국호는렬심의지 복악고치늄고
충군호는일편단심 통히고치길허
3. 천만인오직호모움 나라스랑호샤
스농공양고천업시 적분모다호세
4. 우리나라우리황제 황현이도으샤
국민공락만만세에 태평독립호세

——無窮花歌——²⁵⁾

세째, 이들 시가가 합가의 형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합가의 형식이 찬송가 고유의 특성은 아니지만 초기 찬송가에 이러한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은 일단은 상정해 볼 수 있겠다.

25) 「독립신문」, 1899. 6. 29.

아세 아에 대 조선이
 조 쥬 독립 분명 허다
 합 가
 이 야에 야 이 국 허세
 나라원 히 죽어 보세
 분골 허 고 쇄 신 토톡
 충군 허 고 이 국 허세
 합 가
 우리 경 부 능 혁 주고
 우리 군 연도 와 주세
 ——'너 필 균 이 국가——'

그런데 이러한 합가의 형태도 아펜젤러가 번역한 「천국님군우리주식」라는 찬송가와 비교해보면 쉽게 그것이 찬송가에 영향받은 바 큰 것임을 알게 된다.

천국님군우리주식(합가)알닐누여
 찬송소티하여보세(합가)알닐누여
 죄인을구원 허사 (합가)알닐누여
 십조무덤견터셨네(합가)알닐누여
 죽호심을견터심애(합가)알닐누여
 우리구원성기였네(합가)알닐누여
 하늘에왕이되사 (합가)알닐누여
 천수들이노리하네(합가)알닐누여

이렇게 볼 때, 독립신문에 실린 애국·독립가류는 기본적으로 우리 전통시가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거기에 찬송가적인 요소를 수용함으로서 새로운 시형을 모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IV. 결 론

지금까지의 일련의 작업은 개화기시가 서구시를 수용하여 어떻게 새

로운 시형으로서 창조·변혁되고 있는가를 밝히기 위하여 독립신문 소재 애국·독립가류에 나타난 찬송가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았는데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신문 소재 애국·독립가류의 작가들은 대개 기독교와 관련이 있으며, 그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은 창작자로서의 자부심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그들이 찬송가를 배우고 익히는 사이에 번역 찬송가 외에 우리의 손으로 지어진 찬송가를 접하게 된 데에서 일종의 호기심이 있었을 것이며, 자신들의 창작에 이름을 밝힘으로써 일종의 아이덴티티 현상을 느꼈을 시 분명하기 때문이다.

둘째, 독립신문 소재 애국·독립가류는 민중계몽에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설득적인 목소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엘리어트가 말한 바 시인의 제 2의 목소리로서 찬송가와 같은 유형의 목소리에 속하며, 당시 기독교 찬송가가 내셔널리즘과 깊이 관련되어 대중화되었다는 점에서, 찬송가의 영향으로 보인다.

세째, 개화기시가들이 대개 사회비판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반해서 독립신문 소재 애국·독립가류가 찬양조로 시종하고 있으며 또한 기독교적 색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찬송가에 영향받은 바 크다고 생각된다.

네째, 대개의 개화기시가들이 한문투나 국한문 혼용체에 의해 대중적 이지 못했던 데 반해서 독립신문에 실린 애국·독립가류는 국문체 또는 구어체로 써어졌던 까닭에 대중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찬송가나 성서의 번역에서 크게 영향받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성서나 찬송가의 번역이 한글 보급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독립신문 소재 애국·독립가류는 형태적인 면에서도 찬송가의 영향을 크게 입은 것으로 보인다. 분절이나 후렴구 그리고 합가 등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이다.

결국 독립신문 소재 애국·독립가류는 기본적으로 우리 전통시가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시대사조에 편승하고 기독교 찬송가에 크게 영향받아 새로운 시형을 모색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참 고 문 헌

- 김명철, 「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 을유문화사, 1975.
김영철, 「개화기시가연구」, 서울대석사학위논문, 1975.
김용직, 「한국근대시사」, 새문사, 1983.
김춘수, 「한국현대시형태론」, 해동문화사, 1958.
김학동외, 「개화기문학론」, 형설출판사, 1978.
김학동, 「한국개화기시가연구」, 시문학사, 1981.
박철희, 「한국시사연구」, 일지사, 1982.
백 철, 「신문학사조사」, 신구문화사, 1980.
정한모, 「한국현대문학사」, 일지사, 1974.
조동일외, 「개화기의 우국문학」, 신구문화사, 1974.
조윤제, 「한국시가사강」, 을유문화사, 1954.
조신권, 「한국문학과 기독교」, 연세대학교출판부, 1983.